

소박한 추억의 공간서 만나는 역사와 문화

문화 아지트

② 담양 우표박물관

조각가 나상국·이진하 부부
40년간 모은 1000여장 전시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문위우표'.

1884년 발행 한국 첫 우표

정부수립·헌법 공포 기념

50년대 수재의연금 모금우표도



1997년 정보통신부가 발행한 만화우표.

이승만~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루벤스 작품 실린 北우표도 눈길



전시장 한켠을 차지한 북한 우표 모음.



담양 우표박물관에서는 역대 대통령 취임기념 우표부터 역사, 경제, 예술, 북한 우표까지 주제별로 총 1000여장을 만날 수 있다.

인터넷 이메일이 탄생하기 전에는 누구나 우표를 사용했다. 작은 우표는 굳이 편지봉투에 붙이지 않더라도 예쁜 그림이나 문구가 새겨져 있어 수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네 기억 한편에 숨어버렸지만 담양에 가면 추억 속 우표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지난 15일 오후 방문한 '우표박물관'이 살아있다(관장 이진하)에서는 박물관이라기 보다는 한적한 시골별장 분위기가 느껴졌다.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자 벽마다 주제별로 전시된 우표 1000여장이 눈에 들어온다. 입구 옆에는 돋보기 10여개가 비치돼 있어 작은 우표(2×2.5cm)도 자세히 볼 수 있다. 우표들은 대부분 사람 눈높이에 걸려 있었다. 눈을 가까이 대고 봐야 할 경우가 많은데 자세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는 배려가 엿보였다.

이진하(여·51) 관장은 우리나라 첫 우표인 문위우표부터 안내했다.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되며 음력 10월1일 발행된 문위우표는 딱 21일만 사용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비운의 우표다. 우정국 책임자인 홍영식이 갑신정변으로 처형됐기 때문이다. 사용기간이 짧고 역사적 의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희귀한 우표로 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시기에 사용된 우표는 일본 것을 사실상 그대로 썼다. 우표 위에 한글로 '조선 우표 5전' 등 문구를 덧붙여 사용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다양한 종류가 발행됐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나상국·이진하씨 부부.

국회 개원, 헌법 공포, 해방 1주년 등 역사적 기념일마다 우표가 제작됐다.

한국전쟁 이후 우표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1946년 한글반포 500주년 기념우표가 50전이었는데 1952년 이승만 2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의 가격은 1000원이다. 당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57년 수해 구제의연금 첨가우표도 눈에 띈다. 인쇄된 '40+10'은 요금 외 10원을 성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우표가 성금모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다. 그 옆으로 KBS "TV쇼 진품명품"에서 개당 감정이 200만원에 책정돼 화제를 모은 '연하특별우표' (1957)가 보인다.

초대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역대 대통령들 우표도 만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해와 순방 때마다 우표를 발행하는 등 가장 많은 기념우표를 만들어 타 대통령과 비교 된다. 최근 서거한 김영삼 대통령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한다.

한쪽 벽면을 차지한 북한우표는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내용과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루벤스 작품이 실려 있는 하얀 이탈리아 축구대표팀도 소개

로 삼았다. 대부분 수출용으로 제작됐으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굴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국내 첫 향기를 첨가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기념이나 2014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 기념 우표도 볼 수 있다.

1000원만 내면 엽서나 편지를 써서 보낼 수도 있다. 박물관 앞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매일 집배원이 수거해 간다.

지난해 9월 정식 개관한 우표박물관은 전국에서 유일한 민간우표박물관이다. 조각가인 나상국(58)·이진하씨 부부가 작업실 일부를 리모델링해 165㎡(50평) 규모의 전시장과 카페(10평)를 꾸렸다.

서로 만나기 전인 약 40년부터 우표를 모았던 부부는 취미를 활용해 박물관을 세우기로 결심, 지난해 꿈을 이뤘다. 우표는 빛이나 공기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색이 바래기 때문에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부부는 많은 사람들과 우표 감상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

이 관장은 "우표박물관은 우표수집 추억, 연애편지를 쓰던 설렘을 떠오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등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는 계절에 맞춰 전시 주제를 바꾸고 카페에 작은 갤러리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영시간 오전10~오후6시(매주 월요일 휴관), 요금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문의 061-383-3863
/글·사진=김용희기자 kimyh@

원숭이가 복을 들고 왔어요

행촌미술관 내달 27일까지 특별기획 세화전

(재)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 행촌미술관이 2016 병신년 원숭이해를 맞아 특별기획 세화(歲畵)전 '원숭이가 복을 들고 왔어요!!!'를 2월2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행촌미술관과 산하 이마도작업실을 통해 창작활동을 해온 김주호, 김전일, 김현철, 박재동, 김은숙, 신재돈, 윤석남, 이인, 안운모, 하성흠, 조병연, 최경태, 이수경, 안혜경, 이다애, 이조흠, 윤혜덕, 박광수, 홍지윤, 농전 김철수, 신태수 등 작가 20여명이 참여한다. 또 중광스님의 작품과 미술관 소장품 중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부귀도 등 길상의 의미를 담은 작품 등 총 50여점을 선보인다.

김억, 김주호, 김전일 작가는 원숭이가 복주머니를 들고 등장하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의 행복한 신년을 희망한다.

김은숙 작가는 사진작품 '복을 비는 마음' 속 밝은 보름달 밑으로 보이는 평화수를 통해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고 있다.

미술관은 신년맞이 행사로 박방영 작가가 참여하는 '행운이 넘치는 멋진 나



김억 작 '원숭이가 복을 들고 왔어요'

의 이름쓰기' 워크숍도 준비했다. 큰 붓으로 그림 같은 글씨를 선보이는 박 작가는 2006 세계생명문화포럼, 2010 G20 정상회의 등에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다. 문의 061-530-828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20년 발자취 한눈에

20주년 백서 발간...역사·비전·정체성 등 담아

지난 1995년 첫발을 댄 광주비엔날레는 20년간 매회 시대적 이슈와 문화담론을 시각문화로 승화시키며 '세계 5대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했다. 광주비엔날레 20년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가 출간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박양우)이 최근 발행한 '광주비엔날레 20년 백서'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역사를 350페이지 분량의 한 권으로 집약했다. 디지털화 이전 자료를 최대한 발굴해내면서 한국 현대 미술사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1부(광주비엔날레 20년 경계를 넘어, 창조적 혁신으로) 역사에 이어 2부(세계 현대미술에 던진 아시아적 화두)에는 창설, 조직과 재정, 전시, 동반행사, 홍보, 마케팅, 행사장 운영, 언론 평가 등이 담겼다.

3부(창조의 에너지 국제예술도시 전망을 열다)에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진행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폴리, 아트광주 등의 다양한 사업과 함께 교육 및 교류 프로젝트 등을 풀어냈다. 또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 개최, 광주비엔날레-삼성미술관 리움 포럼, 미술정론지 '눈(Noon)' 발행 등도 살펴볼 수 있다.

4부(평가와 비전 모색)에는 평가와 분석, 정체성과 비전을 담았다. 1998년, 2000년, 2007년, 2013년의 발전방안연구를 비롯, 재단과 외부에서 진행된 심포지엄, 토론회, 공청회 등이 소개된다.

광주비엔날레 20년 백서는 비매품(인쇄본)이며 추후 전자책으로도 만들어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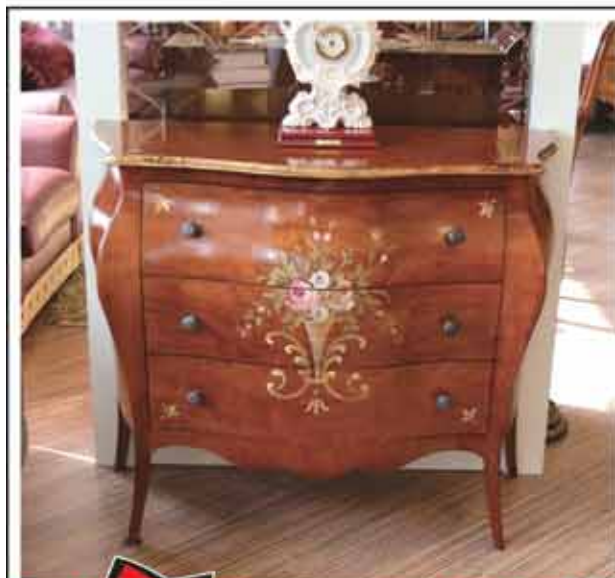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매주 신상품 입점

이태리가구

홍스제이스트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